1929년 조선일보 주최 조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에 관한 고찰

김 용 범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환경공학과 박사과정)
박 용 환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주제어 :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생활개선, 조선주택설계도안현상, 한인건축가

1. 서론

일제강점기 사회 전반에 부흥했던 生活改新·改善은 植民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국민의 실력양성을 위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부터 각종 신문과 잡지 등의 미디어는 여러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사회 지식인들의 계몽적 담론들을 담아냄으로써 대중들 사이에서 생활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켜 주었다. 대체로 생활개선은 생활 그 자체의 개량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담는 용기로서의 주택(가정)을 개량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1] 지식인들은 신문과 잡지에 생활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었고, 특히 1920년대 후반부터 한인건축가들이 참여하면서 그 내용은 더욱 전문화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었던 주택설계도안 현

1) 일제강점기의 생활개선운동은 생활의 과학화, 합리화, 경제화라는 기치 아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문제, 시간관념의 정립, 경제관념의 배양 등 일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白衣 폐지, 다듬이질 폐지, 술잔돌리기 폐지, 규칙적 식사, 요강 폐지 등 의식주 전반을 아우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改新이었으며 일상생활의 場인 가정의 개선문제는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생활개선의 우선적 과제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한 기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朴達成, <新年改良의 第一着으로 朝鮮의 衣食住를 擧하노라>, 開闢 7호, 1921.1.
<生活改造와 住宅의 問題-家屋에 對한 觀念>, 朝鮮日報 3면, 1921.1.21.
李敦化, <生活의 條件을 本位로 한 朝鮮의 改良事業(一)·(二)>, 開闢 15~16호, 1921.9~10.
白言子, <衣食住에 對한 短評>, 新生活 8호, 1922.8.
李軒求, <家庭과 科學>, 東亞日報 4면, 1924.11.3.
申元澈, <生活改善이急先務다>, 東亞日報 3면, 1924.11.9.
<生活運動의 科學化>, 東亞日報 1면, 1925.5.25.
長白山人, <個人의 日常生活의 革新이 民族的 勃興의 根本이다>, 東光 1호, 1926.5.
金晟鎭, <우리 家庭의 衛生的 生活改善>, 東光 36호, 1932.8.
朴吉龍, <잘 살랴면 집부터 고쳡시다>, 實業之朝鮮 1권4호, 1929.9.
李光洙, <生活改善의 急務>, 三千里 12권3호, 1940.3.
聽雲生, <生活改善과 住宅>, 實生活 3권3호, 1932.3.
徐光齊, <나의 關心事-改良住宅>, 朝鮮日報 5면, 1936.8.30.
李允淳, <생활개선에는 먼저 주택문제-집을 짓는데 고려해야 할 요점>, 朝鮮日報 22면, 1937.1.4.
有非子, <生活改善을 科學의 敎示대로>, 湖南評論 3권2호, 1937.2.
丁斗鉉, <科學的 住宅建築을 期함>, 湖南評論 3권5호, 1937.5.

상모집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 조선총독부를 대변하는 건축기관으로서 朝鮮建築會[2]가 주관한 것이 대부분[3]이었지만, 생활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일반대중들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주택개량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4]

일제강점기 동안 개최되었던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들은 이제까지 주로 생활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각 현상모집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하거나 朝鮮建築會의 활동과 함께 조명하는 연구[5]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모집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선일보사 학예부와 일제강점기에 개량한옥을 건설했던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인 建陽社[6]가 주관하여 1920년 대에 개최한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이 있었다. 조선일보의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은 朝鮮建築會가 주최한 현상모집과 다르게 건축 전문인이 아닌 일반 구독계층을 응모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의 분위기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에 주택개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상모집의 심사위원으로 朴吉龍을 위시하여 金允基, 金宗亮[7], 孫亨淳[8] 등의 한인건축가나 건축계 종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본 고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들의 경위를 살펴보고 당선도안의 주택평면에서 요구되는 생활개선의 이념과 주택개량의 실천적 방안은

2) 朝鮮建築會는 1922년 3월 8일 경성공회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회원 122명으로 발족하였다. 주로 총독부 회계과, 경성공업고등학교 교수, 식산은행, 조선철도회사, 철도국, 경성부청, 제20사단, 군경리부, 경기도청 등에 근무하던 사람들로 건축가 뿐만 아니라 시공기술자, 청부업자, 재료업자 등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건축 관계자들의 모임이었다.

3) 朝鮮建築會의 기관지 '朝鮮と建築'에 발표된 현상모집은 改善住宅圖案懸賞(1922), 商店鋪建築設計圖案懸賞(1935), 內地風 及 朝鮮風住宅建築設計圖案懸賞(1937), 小住宅懸賞設計募集(1939) 등이 있다.

4) 대표적으로 1922년에 실시된 改善住宅圖案懸賞은 당선안 발표 후, 동년 10월 21일부터 京城日報 사옥에서 文化住宅圖案展覽會를 개최하여 당선도안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29일에는 '文化生活'과 '文化住宅'에 대한 강연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文化住宅圖案展覽會-廿九仁川寺町小學校講堂で同夜講演會も開催>, 京城日報 3면, 1922.10.27.
<五千圓で出來る中流文化住宅の圖案發表さる來る二十一から二日間本社樓上で公開展覽會>, 京城日報 5면, 1922.10.17.
<文化生活の基調となる住宅圖案展覽會明二十一日から二日間本社來青客樓上で>, 京城日報 5면, 1922.10.20.
<住宅問題の一新生面を拓いた文化住宅圖案展覽會>, 京城日報 7면, 1922.10.22.

5) 김미경·김태영, <朝鮮風住宅建築設計圖案懸賞募集當選圖案 分析·考察>,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4권2호, 1994.
서귀숙, <1922년 조선건축회에 의한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에 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권3호, 2000
김명선,심우갑, <1922년 朝鮮建築會 주최 '改善住宅懸賞募集'에서 일본인 주택의 防寒문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12호, 2001.12.
서귀숙, <조선건축회 활동으로 보는 주택근대화-1922년~1944년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4개 주택설계현상모집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1호, 2004.
김주야, <日帝强占期の建築團體 朝鮮建築會の機關誌 朝鮮と建築と住宅改良運動に關する硏究>, 京都工芸繊維大學 工芸科學硏究機能科學專攻, 1998.12.

6) 鄭世權은 1919년 '建陽社'라는 주택경영회사를 설립하여 가회동 31,33번지, 인사동, 익선동, 봉익동, 명륜동, 성북동 등에 개량한옥을 건설하였다. 그는 李光洙의 '無情'에서 建築王으로 묘사되기도 하였고 1929년의 현상모집 당시 朝鮮物産奬勵會의 理事로 활동하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김란기의 연구(1989)를 참조

7) 金宗亮은 1929년의 현상모집을 심사할 당시에 朝鮮總督府 內務局 建築係에 재직하고 있었다. 1932년부터 필운동에서 건재상을 운영하였고 1936년에는 중학동에 '京城材木店'을 개설하여 주택사업을 시작하였다. 주택경영업자였던 박원용, 정대규 등과 함께 중학동, 삼청동, 계동, 돈암동 등지에 많은 주택을 건설하였다. 자세한 것은 김란기의 연구(1989)를 참조

8) 1929년 5월 30일자 '住宅設計圖案當選發表' 기사에는 심사자의 이름으로 '玄亨淳'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孫亨淳'의 오타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이었으며 주택개량안으로서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2. 1923년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

2-1. 현상모집의 목적과 요강

조선일보 紙上에 처음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이 발표된 것은 1923년 11월 14일이었다. 현상모집의 발표와 함께 조선일보 인천지국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인쳔부(仁川府)에서는 인쳔시가를 하로라도 밧비 문명뎍 도시(文明的都市)로 계획코져 하야 … 도시계획(都市計劃)을 실행코저 하여 실디됴사를 하며 젼문기사를 초빙하여 설계를 하는 중임으로 이 긔회를 리용하야 우리 조선동포의 거주하는 디역에도 시가를 개량하게 됨으로 여러 동포의 생활상 큰 영향이 잇는 쥬택(住宅)제도문뎨에 대하여 한번 개조의 쇼리를 들어놀가 하야 … 쥬택셜게(住宅設計)안을 일반동포에게 어더써 이것을 인천도시계획과 동시에 그 제도(制度)를 가지고 조선동포의 쥬택을 건축케 할가하야 널니 설게서를 모집하는 바 …[9]

1923년의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은 서울이 아닌 인천을 배경으로 모집되었는데, 당시 인천은 개항장으로서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도시정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나카시마(中島)가 인천의 새 府尹으로 부임하면서 동년 10월 19일부터 실지답사를 바탕으로 仁川市街 改正計劃을 수립한다[10]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일보 인천지국은 이 기회에 조선인 거주지역의 시가개량과 발맞추어 주택제도를 개조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현상모집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인천지국은 현상모집의 공식적인 명칭 없이 설계도안을 모집한다고만 발표하였고 그 다음날인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기한을 두어 전문가와 인천부 협의원, 조선일보사 사원이 함께 심사할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 현상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설계요건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그 요건은 가옥(家屋)의 외관(外觀)이 미려(美麗)하고 건축(建築)이 간편(簡便)하고 비교뎍 경제뎍(經濟的)이며 또 보통 누구에게 던지 쓸모가 잇는 리상(理想)에 뎍합흔 것을 취하는 바 간수의 한도는 각 호가 칠간(七間)이상 십오간(十五間)이내의 것이며 또 뎨도는 순조선가옥(純朝鮮家屋)제도인 바 …[11]

현상모집의 설계요건은 건축이 간단하여 경제적이고 보통사람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정도로 개략적으로만 주어졌다. 건축비가 얼마나 들고 몇 명의 가족이 생활하는 주택이어야 하는지 혹은 평면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7간에서 15간 이내의 '純朝鮮家屋'으로 주택의 구조와 규모만 제한하고 있다. 덧붙여 설계요건에 대한 주의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는 굉걸한 것을 요구하나 경제가 용서치 안이함으로 도뎌히 념두에도 두지 못하는 바, 평가옥(平家屋)의 제도를 취한 것인즉 이 뎜에 대하야 일반응모자는 여긔에 주의함이 필요하며 …

9) <住宅制度案懸賞募集-仁川都市計劃을 機會로 하야-조선인가옥제도를 개조하고자 본보인천지국에서 노력하는중>, 朝鮮日報 3면, 1923.11.14.

10) <仁川市街改正計劃-十九日부터 實地를 踏査-인쳔도시의 면목을 일신케 하고자 부윤은 근본됴사를 시작하얏다고>, 朝鮮日報 3면, 1923.10.22.

11) <住宅制度案懸賞募集-仁川都市計劃을 機會로 하야-조선인가옥제도를 개조하고자 본보인천지국에서 노력하는중>, 朝鮮日報 3면, 1923.11.14.

조선일보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이 발표될 무렵 사회적으로 생활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의 지식인들이나 건축가들이 주택개량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굉장한 것', 즉 2~3층의 洋風주택 혹은 소위 文化住宅이라고 하는 이상적 주택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에 文化住宅이라고 부르는 洋風주택이 얼마나 지어지고 있었는지는 신문지상의 몇몇 기사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12] 비록 대부분 우리의 주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층집', '양옥집'들이 생활개선을 주창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중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조선일보 인천지국은 현상모집에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통의 조선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平家屋'으로 주택개량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일보 인천지국은 현상모집이 발표된 지 보름 후인 11월 29일에 설계도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다시 발표하였다. 일반인들이 설계도안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도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였다.

> 가옥제도는 초가는 제외하고 일곱간 이상 십오간 이내의 슌조션식으로 아모쪼록 경제되고 보기에 미려하고 또는 간편하게 쓸모잇는 가옥의 설게안을 구며 본보 인쳔지국 현상계로 보내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 설계안에는 반다시 가옥의 도면과 해설를 긔입하되 건축비가 얼마인지 또는 가옥의 구죠를 따라 벽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내외부를 물론하고 소용되는 물재를 구별하야 흙과 나무, 돌, 벽돌, 셰멘트 등 여러 가지의 물재드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또한 바라는 바이라 …[13]

모집요강에서 '純朝鮮家屋'이라고 말한 주택의 구조적 요건에서 草家를 제외함으로써 인천시가의 개량에 걸맞은 개량한옥의 선례가 될 만한 도안을 모집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고는 있지만 설계도안으로 제출할 도면의 종류와 축척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았다. 위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응모자가 주택평면을 임의의 축척으로 작성하고 건축비, 가옥의 구조 및 재료를 비롯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설명으로 첨가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강들을 통해 보았을 때, 1923년의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은 생활개선상의 뚜렷한 목적이나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2. 당선도안의 발표

조선일보 인천지국은 예정되었던 기간 내에 현상모집을 마치지 못하고 연기하게 되는데, 모집마감일을 3일 남겨둔 12월 12일자 신문에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12) 주택난이 계속하든 재작년에는 신축 사백여섯채, 증축 일백예순여섯채의 총건평이 륙천여평이나 되얏고 작년에는 신축 삼백마흔일곱채, 증축 구십채의 총건평이 오천여평이나 되얏는데 이 중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이층이나 벽돌집 같은 것은 … 해마다 삼사십 혹 사오십씩 늘어가는 사실인대 …, <發展되는 京城-家屋新築의 傾向>, 朝鮮日報 2면, 1924.2.4.
거리마다 벽돌집과 삼사층 양옥집이 즐비하게 들어안는 반면에 낡은 녯집은 하나둘 작고 헐리어가서 외관상으로 보건대, 시가는 일층 미려하고 굉장하게 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大京城의 過去와 將來-逐年 增加하는 二三層洋屋>, 朝鮮日報 2면, 1929.1.1.
三坂(註;現 용산구 후암동)은 좋은 곳이다. 조선은행의 사택이 나온 후부터 三坂에 사는 호수가 점점 늘어난다. 벌써 이 곳은 10년이나 되었다. 경성에서 가장 일찍 개발된 곳이 바로 三坂이다. 실제로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다. … 지금 한창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남쪽과 서쪽으로도 주택들이 즐비하다. 너비 20만평인 三坂일대는 조선은행사택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확대되어 간다. 三坂은 京城에서 가정 큰 주택지일 것이다, <住宅點景(十) 元祖の三坂一帶, 材料が安い-勞銀も幾分安い今が家の建て時だ>, 京城日報 2면, 1930.11.30.

13) <住宅設計에 對한 主義-本報 仁川支局의 懸賞募集>, 朝鮮日報 3면, 1923.11.29.

> 그간 백여장의 응모투고자가 잇는바 그 중에는 멀니 중국 안휘직업학교를 위시하야 평북, 전남 등디에셔 각각 십여명식의 응모자가 잇는 바 지금도 각디에셔 모든 사람들이 통신으로써 긔한을 연긔하야 달나는 통지가 두두히 오며 … 특히 금년말에 일으럿슴으로 본보에셔는 신년호쥰비에 분방하야 도뎌히 힘이 원만히 밋치지 못하야 유감이 업지 못할가 하는 생각도 잇으며 또한 전문기술가의 심사원이 방금 모디에 출장하야 그히 환기가 지연되는 관계상 … 응모긔한을 연기하야 본월 십오일까지의 긔한을 본월 말일까지로 연긔코져 하오니 …[14]

현상모집의 기간 중에 백여 점의 응모안이 모집되었고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응모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지만 신년호 준비와 전문 심사위원의 부재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알렸고 동월 말일까지로 응모기한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해를 넘겨 1월에는 2월 10일에 인천공회당에서 심사회를 개최하고 당선안을 발표할 것임을 다시 알렸고 전문 심사위원을 맡게 될 朴吉龍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심사하는 사람은 현재 총독부(總督府)건축과(建築科)에 기사로 재근하는 박길용(朴吉龍)씨인 바 씨는 건축계의 명성이 가장 놉흘뿐 안이라 죠선에서 한분이라 할만하며 … 래이월 십일에는 인쳔공회당(仁川公會堂)에셔 심사회(審巡會)를 열고 엄졍히 심사발표가 잇스리라 …[15]

당시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던 朴吉龍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張錫佑, 丁致國, 鄭順澤, 朱邱基, 金相圭, 金允福, 南宮薰, 金容熙, 朴昌漢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16]

그러나 현상모집의 당선도안은 실제로 신문지상에 게재되지 못하였다. 정확한 연유는 확인할 수가 없으나 1924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조선일보가 停刊을 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하여 당선도안 발표기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신에 동아일보 1924년 2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예정대로 2월 10일 인천공회당에서 심사회는 개최되었고 朴吉龍과 그 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안을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17]

이 기사에서도 당선안은 설계자의 이름만 발표되었기 때문에, 조선일보 인천지국이 1923년에 개최하였던 현상모집의 당선도안은 아쉽게도 그 주택평면을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다.

---

14) <住宅設計案募集延期-應募 諸位의 便宜를 爲하야>, 朝鮮日報 3면, 1929.12.12.

15) <住宅設計案發表期-오는 이월십일에 발표할터>, 朝鮮日報 3면, 1924.1.23.

16) 이 무렵 朴吉龍의 정확한 직급은 技手였지만 技師로 소개되고 있다.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종사자이거나 인천부 혹은 조선일보 인천지국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朴吉龍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898년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예지동 278번지 출생
1919년 13월 25일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 졸업
1920년 12월 31일 조선총독부 건축과 技手로 근무
1932년 15월 17일 조선총독부 技師로 승급 기사
1932년 15월 19일 조선총독부 퇴직
1932년 17월 17일 박길룡건축사무소 개설
1941년 14월 15일 建築朝鮮 창간
1943년 14월 27일 서울 公平洞에서 死亡
김정동, <예인탐구(33)-한국 근대건축의 새 지평을 연 선구자 朴吉龍>, 문화와 나, 삼성문화재단, 2001년 5·6월호, 6~10쪽 참고

17) 그동안 懸賞募集中이든 朝鮮日報 支局 主催 住宅設計圖案은 十日 午後二時 公會堂에서 審査發表를 行한바 … 朴吉龍氏의 審査로 如左히 當選入賞되얏더라.
一等 京城 館洞四五 姜嘩
二等 公州永明學校內 朴驛緖
三等 京城 黃金町 兪亨穆
等外 韓翊東, 趙漢楨, 黃在中
<仁川住宅設計>, 東亞日報 3면, 1924.2.13.

3.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모집요강

1923년의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이 개최된 지 5년 후인 1929년에 조선일보사는 두 번째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을 개최하였다.

1929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주택설계 현상모집이 발표되었는데 현상모집의 정확한 명칭은 '朝鮮人 生活에 適應한 住宅設計圖案懸賞募集'(이하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으로 부르기로 한다)이었고, 1923년의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 때와 같이, 조선일보사 학예부와 建陽社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1923년의 현상모집과 내용상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人生活에適應한

住宅設計圖案懸賞募集

主催 建陽社 朝鮮日報社學藝部

一、募集要項 京城이나地方이나우리들의生活慣習에容認되는同時에現代文化生活에適應하며家族六人이居住할만한價格金二千圓(建築費每坪金七十二圓、基地每坪金三十圓)內外의建築費를要하는住宅으로할일

一、答案 基地圖內에建物配置圖를그리고圖外에其構造材料와構造方法을明記할일

一、募集期限 本年四月末日까지

賞金 一等 一人 百五十圓 二等 一人 百圓 三等 一人 五十圓

—發表時日과其他詳細事項은追後發表—

<그림 1> 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모집요강 (朝鮮日報 3면,1929.3.21)

1. 京城이나 지방이나 우리들의 生活慣習에 容認되는 同時에 現代文化生活에 適應하며,
2. 家族 六人이 居住할 만한,
3. 價格 金二千圓 (建築費 每坪 金七十二圓, 基地 每坪 金三十圓)內外의 建築費를 要하는 住宅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요건은 '우리들의 生活慣習에 容認되는 同時에 現代文化生活에 適應'되어야 함이다. 1923년의 현상모집에서 15간 이내의 조선식 주택개량안이 요구되었던 반면,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에서는 주택의 양식이나 구조보다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에 적합한 범위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를 내세웠다.

당시 생활개선에서 '문화생활'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문화생활'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들어서서 미디어의 발간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18], 개인의 생활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넘나드는 총체적 개념으로 쓰였던 용어였다.[19]

18) 요사이 文化生活이라 하는 一種 新熟語의 流行함을 見하겠도다. … 只今 이 文化生活이라는 新熟語도 解放 또는 改造이라는 流行語에 다음하야 流行된 것이나 …, 權園, <文化生活의 意味>, 新生活 9호, 1922.9.
이즈음에 와서는 文化라는 말이 한 流行語가 된 듯 시픈데 流行語가 된 이만큼 … 우리는 이 文化라는 말을 만히 들으며 또 우리들 자신이 만히 씁니다. 文化主義, 文化運動, 文化生活, 文化政治, 文化住宅, 文化田園... 이런 말들이 만히 쓰이며 文化式이니 文化的이니 하는 形容詞를 만히 씁니다. 文化라는 말이 이러케 만히 쓰이게 됨에는 거긔에 반듯이 큰 의미가 잇슬 것임니다., 李庚烈, <文化의 意義-人類의 理想>, 東光 9호, 1927.1.

19) 李覺鍾은 <生活改善論>에서 개인생활과 더불어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단순화, 합리화하여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생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生活改善의 本領은 … 個人生活, 家庭生活, 社會生活을 通하야 時代의 變遷에 順應하야 現狀에서 一層 單純化, 合理化하야 더욱 忠實向上함에 … 現代人의 文化生活은 實로 이 곳에 意義가 잇다. 換言하면 文化生活의 根本義는 衛生, 經濟, 道德, 趣味의 四方面으로부터 人類의 要求를 充足向上케 함에 잇다., 李覺鍾, <生活改善

일본에서는 1921년 홋카이도(北海道)제국대학 모리모토 코키치(森本厚吉)교수를 주축으로 文化生活研究會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文化生活>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고 일본의 대표적인 주택관련 전문잡지였던 <住宅>(1916)에서도 1920년부터 '문화생활'에 대한 기사들[20]이 본격적으로 실렸다. 또한, 1922년 平和記念東京博覽會에서는 '文化村'이라고 불렀던 14채의 실물주택이 생활문제의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전시되었고 文化村 전시에 앞서 일본건축학회 회장인 나카무라 타츠타로(中村達太)가 건축계를 비롯하여 문학계, 법학계 등의 유명인사들을 초대하여 강연을 열었는데 원래 제목이 '建築と生活改善'이었던 것을 '建築と文化生活'로 바꾸어 강연을 했다고 한다.[21]

'문화생활'은 재래의 불합리한 생활을 개선하여야지만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이자 이상적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곧 '문화생활'은 생활의 과학화, 단순화, 합리화를 통하여 이룩해야 할 생활개선의 목표[22]이자 '개인존중', '중류가정', '가족단란', '가족본위', '스윗-홈' 등과 함께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新생활의 키워드였다.[23]

이러한 측면에서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에서 가리키는 '문화생활'의 영위는 舊習의 생활을 정리하고 합리적, 과학적 편리함을 갖춘 새로운 생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가족 6인의 中流家庭이 2,000원 내외의 건축비로 마련할 수 있는 주택개량안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24] 가족구성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이전에 개최되었던 다른 현상모집들과 비교해 보면, 주택의 규모나

論>, 新民 50호, 1929.6.

20) 1921년 11월에는 '文化住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호가 구성되었고 <文化生活と洋風住宅>, <バンガーロ式と文化住宅>, <カッテージの風格>, <簡素した郊外住宅>, <プラン巢ぷらんスの郊外住宅>, <台所改善と電氣化>, <緣側おベランダへ> 등의 글이 실렸다.
이경아, <일제강점기 문화주택 개념의 수용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론, 16~20쪽, 2006.8.

21) 이경아, 앞의 글, 21쪽

22) 金惟邦은 <文化生活과 住宅>에서 근대문명의 과학정신을 이어받아 二重·三重의 생활을 축소하고 재래생활의 단점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의 배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近來 우리 朝鮮社會에서도 文化生活이라는 말을 흔히 듯슴니다. … 이는 반드시 近代文明이라는 科學精神의 洗禮를 밧은 後의 … 우리가 要求할 文化生活 그것은 … 그 生活의 容器가 되며 우리의 것이 되는 住宅과 家庭이라는 것의 樣式에 對하야 … 우리가 要求하는 現代文化生活의 背景을 完全히 하기 爲하야 또는 우리가 困難 中에 잇는 2重·3重生活을 短縮하기 爲하야 우리 在來生活의 短所를 除去하고 … 우리의 새로운 生活의 背景을 지으려 하는 것이 그 目的입니다., 金惟邦, <文化生活과 住宅-鎭國時代에 일너진 우리의 住宅制>, 開闢 32호, 51~53쪽, 1923.2.

23) 存在만으로 잇던(內的, 外的, 物的, 心的) 自然에다가 人爲(價値를 附加하는)를 加하여 어떤 理想을 實現하려는 過程을 總稱하여 文化라고 定義할 것임니다. … 自然은 곳 文化創造의 材料며 人爲는 곳 文化形成의 作用(努力)이며 理想은 곳 文化가 실현하려는 價値임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文化는 自然의 理想化의 過程이라고 간단하고도 명백한, 그리고 또 槪括的인 定義를 나리게 됩니다. … 그러기에 文化生活이란 곳 理想的 生活, 文化住宅이란 곳 理想的 住宅이란 뜻일 것이외다., 權園, 앞의 글

24)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中流家庭을 구성하는 계층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을 포괄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鮮于全은 <朝鮮人 生活問題의 硏究>에서 중류계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新時代에 適應할 만한 生活, 卽 現代의 文化生活에도 그 範圍에 限이 有하겟고 標準이 有할지니 … 國民生活의 專門的 硏究에는 中流階級을 標準하야 生活의 標準을 定하고 此에 準하야 其下 各 階級의 生活標準을 定하는 것이 其亦 常例임으로 以下 朝鮮人 生活問題에 關한 生活의 標準도 朝鮮人의 中流階級을 標準하야 生活의 標準을 定코저 한다.

中流階級의 標準
一, 安全한 生活을 營하는 者
二, 主로 資本 及 勞働의 結合에 中在하야 生計를 營하는 者
三, 所得 及 財産의 中補를 得하는 者

鮮于全, <朝鮮人 生活問題의 硏究(三)>, 開闢 22호, 1922.4.

[표 1] 주택설계 현상모집 요강의 내용비교

	개량중류주택 특별현상모집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25]	조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
주최	주택개량회	조선건축회	조선일보사, 建陽社
개최 시기	1917년 12월	1922년 6월	1929년 3월
규모	-	延坪 30평 이하 (단, 지하실 포함 안함)	-
건축 양식	和洋[26] 기타 여러 가지 양식 중에서 현대의 일본 중류신사에게 적합한 개량주택	조선중부의 기후풍토에 적합하도록, 특히 외벽은 방한적일 것	우리들(조선인)의 생활관습에 容認되는 동시에 현대문화생활에 적응하는 주택
배치	-	가족본위	-
건축비	1,500원 내외	5,000원 이하	2,000원 내외 건축비 1평당 72원 부지 1평당 30원
가족 수	가족 5인 (부부, 아동 2명, 식모)	5인 정도	6인
제출 도면	주요 입면도 2장, 각층 평면도(축척 1/100) 및 설명서 요람 단, 새로운 방안은 각 도면 및 설명을 부가할 것	각층 평면도, 정면·배면·측면도(축척 1/50). 단, 背景圖 및 도안설명서의 첨부는 임의	基地圖 내에 건물 배치도를 그리고 圖外에 그 구조재료와 구조방법을 명기

양식, 건축비는 각기 그 목적에 따라 달랐으나 중류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수는 모두 5인 내외로 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1]을 참조)

住宅改良會[27]의 '改良中流住宅 特別懸賞募集'에서는 중류가정의 가족구성을 부부, 자녀 2명 그리고 식모로 설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정으로서 식모 1명을 두고 자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단란한 생활에 개량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도로서, 朝鮮建築會의 改善住宅設計圖案 懸賞募集의 '가족본위'와 같은 이치의 이념이었다.

결국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모집요강에서 말하는 '현대문화생활'은 '조선 중류가정의 가족본위를 실현한 생활'이라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현상모집의 답안으로 基地圖(부지도)에 주택의 배치도를 작성하고 구조와 재료, 구조방법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개량안의 내적 공간구성은 물론, 부지와 주택과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도시환경에 적합한 개량주택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개

25)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요강에서 현상모집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本 會는 매우 시급한 住宅改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번 기관지 <朝鮮と建築>의 창간호 발행을 맞이하여, 조선에 있어서 中流家庭으로 文化生活에 적응하는 改善住宅設計圖案을 모집한다.', 朝鮮建築會, <住宅圖案懸賞募集>, 朝鮮と建築 1집1호, 1922.6.25.

26) 和洋의 용어는 일본건축학계의 용어로, '和'는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大和族'의 줄임말이다., 김정아·김성우, <일제시대 주거건축에서 일본식 주택의 유입과 韓·日·洋 양식의 절충과정>,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76쪽, 1992.11.

27) 住宅改良會는 일본에서 가장 일찍 조직된 주택전문단체로서, 1916년부터 1943년까지 잡지 '住宅'을 발간하였고 20회에 걸쳐서 주택개량에 관한 다양한 현상설계모집을 개최하였다., 内田青藏·大川三雄·藤谷陽悅, <圖說·近代日本住宅史>, 鹿島出版社, 54~55쪽, 2001

량한옥을 건설했던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인 建陽社가 공동으로 현상모집을 주최하였다는 사실이 그러한 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일보사는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모집기한을 그 다음 달인 4월 말일까지 두었고 상금은 1등에서 3등까지 각 1작품당 150원, 100원, 50원이었다. 당선안 심사에는 1923년의 현상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朴吉龍이 참여하였고 金宗亮, 金允基[28], 孫亨淳까지 모두 네 명의 한인건축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4.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당선도안 평면특성 분석

4-1. 당선도안의 선정기준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당선도안 발표에 따르면 약 육백 명의 응모자가 설계도안을 제출하였고 그 심사결과는 동년 5월 30일자 조선일보에 1등안과 31일자 지상에 2등안과 3등안 그리고 선외가작 두 작품이 발표되었다.[29] 설계자는 대부분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어 소속이나 출신을 불명확하지만 그 중에서 2등안의 金廳壽는 경성고등예비학교로 그리고 선외가작의 金舜河는 전라남도 토목과로 본인의 소속을 밝혀놓았다. 설계자의 정확한 직급은 알 수 없으나,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당선도안의 설계자들은 건축에 종사하거나 그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이들로 추측된다.[30]

조선일보사는 당선도안 발표와 함께 이번 현상모집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들의 생활의식이라든가 그 생활방식이 가속도로 향상변천되는데에는 아즉까지 그 주택(住宅)은 봉건시대(封建時代) 옛것을 면치못하얏스니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살림사리는 어느새나 이중(二重)일 것입니다. … 우리들의 주택문뎨(住宅問題)도 그 한 가지로 보고서 … 현상(懸賞)에 부처 응모(應募)를 청한 그 의도(意圖)는 결코 조금도 관념뎍(觀念的)에 잇지안코 … 우리들의 주택은 … 내부뎍구조(內部的構造)가 튼튼하고 완전하고 편리하여야 우리들의 살림사리가 향상(向上)되고 또한 그 생활이 정돈될 것입니다.[31]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을 모집하고자 하였던 의의는 생활개선의 중요한 문제로서 '이중생활의 정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중생활'은 서구문화의 유입이 일상의 가정생활에까지 침투하는 가운데 기거양식과 주거공간과의 괴리에서 비롯된 생활상의 비위생적, 비경제적 불합리함이었으며 '문화생활'로의 진척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였다.[32]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은 그 연장선 상

---

28) 金允基는 1928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鐵道局 工務課 建築係에 재직하고 있었다.

29) 當選諸氏
一等 朴八甲 (賞金 一百五十圓)
京城府通同百十番地
二等 金廳壽 (賞金 百圓)
京城高等豫備學校
三等 朴雲波 (賞金 五十圓)
京城黃金町一丁目百二十一番地

選外佳作 金舜河 (全羅南道 土木課),李泰 (京城府內資洞三十一番地)

30) 심사평에서 현상모집이 일반인의 응모임에도 불구하고 도안작성이 기술자에 상당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今般 募集이 大象的인 것은 滋味있는 現象이다. 그것은 全然 이 建築方面에 關係치 아니한 初對로서 漸次 段階的으로 相當한 技術者의 作圖가 進化的으로 提出된 것이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二)>, 朝鮮日報 3면, 1929.6.2.

31) <住宅設計圖案當選發表>, 朝鮮日報 3면, 1929.5.30.

32) '이중생활의 타파'는 당시의 각종 박람회나 현상모집들에서 공통된 생활개선의 주제이자 목표였다. 예를 들면, 1915년 國民新聞社가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동경 우에노(上野)공원에서 개최한 가정박람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문명의 진보에 따라, 사회변화에

에서 주택개량의 관념적인 모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중생활을 정리하고 생활의 단순화, 합리화를 위한 주택개량의 모범적인 실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金允基는 당선도안 발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게재된 심사평[33]을 통하여 당선도안 심사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住宅改新은 生活改新의 重大한 問題이다. 우리의 處地로 보아 住宅改新은 近日에 流入된 所謂 文化住宅 그것을 慫慂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二千圓을 가지고 小住宅을 建築함에 如何히 設計하여야 生活하기에 便利하고 構造와 外觀이 조흘가 하는 것이 要컨대 住宅改善의 焦點이 될 것이다. 그러면 經濟, 構造, 美觀의 條件을 具備하여야 할 것이니 今般 懸賞設計의 主眼點은 곳 이것이다.[34]

金允基는 생활개선의 중대한 문제로서 주택개량은 文化住宅[35], 즉 서구식 주택 그 자체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도안 심사의 주안점을 생활의 편리성, 구조의 경제성, 외관의 심미성에 두고 있으며 이들이 곧 주택개량의 요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에서 찾고자 하였던 주택개량의 실례로서, 생활이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인 구조와 미관을 갖춘 소주택[36]이야말로 '조선인 생활에 적응한' 주택으로서 가장 합당한 개량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주택 개량의 모델로서 당선도안의 주택평면이 갖추어야 할 요점은 무엇이었을까?

金允基는 현상모집의 요점으로서 주택의 평면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입선하지 못한 도안들이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7]

① 건축비가 소정한 것보다 초과한 안

② 배치도가 없어서 실현성이 없는 안

③ 서양주택이나 일본주택에 溫突이라고 기록한 것에 불과한 안

맞춰, 가정의 실제생활에 관한 문제는 점차 복잡해진다. 어떤 집에 살아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또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가정의 문제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의식주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법인데, 신시대의 의식주와 구시대의 의식주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 시대에 적합한 가정 및 가정생활을 이론상으로 설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제 보여주기 위해 가정박람회는 기획되었다.', 吉見俊哉, 이태문 옮김, <박람회-근대의 시선>, 논형, 175~176쪽, 2004 참조, 그 외에 金惟邦의 <文化生活과 住宅>(주석22) 참조

33)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에 대한 심사평은 당선안 발표 이후 6월 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모두 金允基의 이름으로만 게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소견이 반영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34) 金允基, <住宅設計 考選所感(一)>, 朝鮮日報 3면, 1929.6.1.

35) 文化住宅의 서구지향적 속성은 1922년 平和記念東京博覽會 文化村에서 확립되었다. 文化村에 전시된 실물주택

중에는 방갈로풍의 서구적 외관, 전원주택지의 분위기 그리고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한 응접실과 거실, 식당, 부인실과 아동실의 기능적 공간구성을 갖춘 거실중심형 주택이 등장하였다.
内田青藏·大川三雄·藤谷陽悅, 앞의 글, 54~55쪽 참조

36) 일반적으로 중류주택은 40~50평 내외의 것을, 소주택은 20~30평 내외의 주택을 지칭한다.

37) 當選圖案에 對한 評을 하기 전에 入選치 못한 圖案의 缺點을 概括的으로 說明코저한다 하면 第一은 募集規定을 無視한 것이니 … 二, 住宅의 本意를 忘却한 點이 만타 … (다) 懸賞圖案에 대하야 理解와 技術이 적은 것 … 今般 問題가 配置圖에 平面圖를 그려서 簡單한 說明만 잇스면 充分하다. … 勿論 要求圖面 以外에 詳細圖 其他를 添附함은 조켓지만 그 때문에 第一重要圖面을 等閒하게 되기가 쉽다. … 詳細圖와 仕樣書와 透視圖 等 添附햇다고 設計의 價値가 놉하가는 것은 아니다. 第一要點은 平面計劃이다., 金允基, <住宅設計考案所感(二)>, 朝鮮日報 3면, 1929.6.2.

④ 가족 6인이 거주하는 조건을 무시한 안

⑤ 각 실의 연결, 특히 주방의 위치와 변소의 위치가 좋지 않는 안

⑥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지 않은 안, 특히 가족실, 즉 소주택에서의 內房(안방)이 제일 볕이 잘 드는 남쪽에 위치하고 하녀실, 客室 등은 북향이나 서향이라도 관계가 없다.

⑦ 密室이란 점을 망각한 것, 실 간의 소음 뿐만 아니라 현관에 들어서면서 집 내부 전체가 보이거나 주방의 음식 냄새와 변소의 악취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음식과 의복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각 방에는 의복을 수납할 곳과 주방에는 식기와 상을 놓을 곳이 있어야 한다.

결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은 건축비, 주택의 배치와 구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소주택안(①·②·③)을 찾고 있었고 가족 6인의 중류가정을 기준으로, 부부와 자녀 3명 그리고 하녀가 기거할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의 침실을 확보할 것을 요구(④)하고 있었다. 또한, 평면계획상으로는 각 실간의 연결(동선)문제(⑤), 가족실로서의 內房의 남향배치(⑥), 각 실간의 프라이버시 확보(⑦) 그리고 수납공간의 확보(⑧) 등이 중요한 요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면계획상의 개념들은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에서도 성립되고 있었는데,[38]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에서 당선도안의 주택평면이 갖추어야 할 주택개량의 요점이자 선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4-2. 각 당선도안의 평면특성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당선도안은 선외가작을 포함하여 모두 5개의 안으로, 부지 30평 내외, 건평 15평 내외의 소주택안이었다.([표2]를 참조) 당선도안 모두 조선 재래의 목조기와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면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의 외관을 알 수 없으나, 3등 당선도안과 선외가작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서구식 외관을 띄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39]

1등 당선도안의 주택평면을 살펴보면, 현관을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客室이 위치하고 왼쪽으로 아동실을 통하여 內房까지 연결된다. 현관과 부엌 옆 하녀실은 복도로 이어지고 있고 이 복도를 통하여 변소와 세면소의 출입이 가능하다. 중앙의 부엌에는 內房쪽으로 아궁이가 놓여 있고 개수대를 갖춘 개량된 부엌의 형태이다. 찬마루에는 식기들을 수납할 수 있는 찬장을 마련하였고 이 찬마루를 통하여 內房과 복도로 연결된다. 즉, 모든 실이 복도로 연결되면서 동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客室과 內房의 프라이버시를 확립하고 있다.

內房과 아동실 사이에는 작은 마루를 두어 內房과 마루 그리고 아동실로 연결되는 공간이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40] 1등안은

38) 1903년 '建築雜誌'에는 해외생활의 경험자인 건축가 3인의 재래주택 비판이 차례차례 발표되었다. 당시 비판에서 주장한 내용은 옆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과, 주택 내를 이동할 때에 옆방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실을 서재로도, 침실로도, 식사실로도 겸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① 소리가 누설되는 불편함, ② 실을 지나가는 불편함, ③ 실의 독립성 결여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재래주택의 비판은 차후 중복도형 주택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內田青藏·大川三雄·藤谷陽悅, 앞의 글, 35쪽 참조

39) 一,二等 設計案은 平面으로 立面(外觀)을 想像하면 洋風住宅인 듯 하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四)>, 朝鮮日報 3면, 1929.6.7.

40) 金允基는 1등안에서 內房을 가족실로 사용하고 內房과 아동실이 인접하여 마루로 연결되게 처리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便所, 洗面所 저便에 下女室(6尺×9尺)이 잇서 廚房에도 갓갑고 玄關에도 갓가와 來客에게도 便利하겠지요. 內房은 五間이라 全家族이 能히 團欒할 수 잇고 兒童室

모든 실에 온돌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의 외관은 붉은 기와에 스타코로 마감하여 文化住宅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41]

2등 당선도안의 가장 큰 특징은 西洋室의 서재가 남향으로 돌출되어 평면이 'ㄴ'자형의 다소 독특한 형태가 되었다는 점이다.[42] 서재는 정원 쪽으로 돌출창이 나 있고 난로나 페치카를 두어 洋風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현관 왼쪽으로 하인실과 변소, 세면실이 위치하고 현관을 지나 廣間(註;현관과 연결된 前室 혹은 홀)에서 바로 서재로 들어갈 수 있다. 廣間에서 오른쪽으로 복도를 지나면 가족실과 부엌으로 연결되는데, 가족실은 주택평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도 개구부와 툇마루를 두어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족실은 거실(居間)이나 차노마(茶の間)와 같은 일본식 기거양식의 형태와 유사하며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엌에는 복도와 연결되는 작은 찬마루와 아궁이가 놓여 있고 부엌 옆에 곳간을 두어 뒷문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하였다.

3등 당선도안은 1등과 2등의 당선도안과 달리 재래식 주택평면에서 대청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듯한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다.[43] 현관을 들어서서 客室兼主人室과 변소, 세면실이 위치하고 왼쪽으로 복도를 지나면 대청으로 먼저 연결된다. 客室兼主人室은 현관에서 바로 출입하도록 하는 반면에, 婦人室과 부엌, 온돌방은 현관 외에 대청으로도 직접 출입할 수 있고 대청에서 모두 연결된다. 즉, 대청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생활공간과 客室兼主人室의 접객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다. 客室兼主人室은 온돌을 사용하고 있지만 2등안과 마찬가지로 의자식 생활의 西洋室로 꾸며 놓았다. 부엌은 다른 당선도안보다 비교적 넓은 편으로, 아궁이와 찬장이 놓여 있고 뒷문을 통하여 편리하게 장독대와도 바로 연결된다.

洋風의 客室을 채용하거나 접객공간과 가족생활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등 3등 당선도안도 일본식 기거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선외가작으로 선정된 당선도안은 각각 거실중심형의 공간구성과 전통재래의 공간구성을 채택하여 매우 상반된 특성을 띄고 있다.

거실중심의 공간구성은 平和記念東京博覽會 文化村의 출품주택에서 선보였던 것으로, 당시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에서 洋風化 경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을 통하여 침실을 비롯한 모든 실들이 연결되는 구조이며 거실 뿐만 아니라 침실과 부엌, 아동실, 응접실 모두 서양식의 기거양식을 채용하고 있다. 거실중심형 주택은 가족본위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계획된 주택이었다.[44]

선외가작 1안 역시 거실중심형의 공간구성을 따르고 있는데, 현관을 들어서서 廣間 주변에 변소와 세면실이 위치하고 廣間을 지나

이 바로 여페 잇서 恒常 監督할 수 잇다. 內房, 兒童室 사이에 마루가 잇는 것은 매우 잘 生覺한 點이며, 日光浴室이 될 것이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三)>, 朝鮮日報 3면, 192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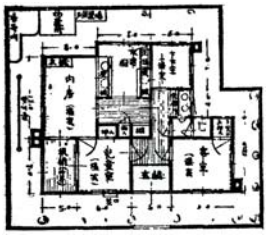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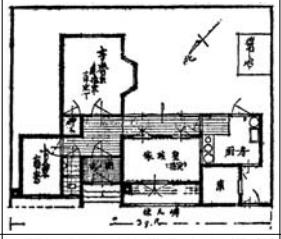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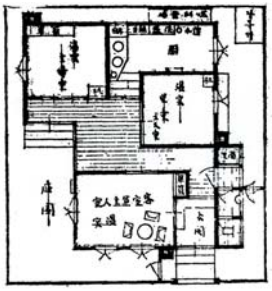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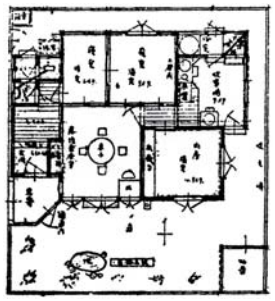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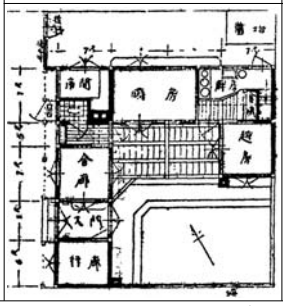
41) 朝鮮式을 近代化 改良했다는 것보다 近代式을 朝鮮化 식힌 것이다. … 붉은 개와에 쓰탁코를 바른 것은 昨今 京城郊外에 보이는 所謂 文化住宅을 連想하게 된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三)>, 朝鮮日報 3면, 1929.6.6.

42) 書齋는 西洋室로 取扱하야 빠-윈도-(出窓)을 낸 것도 西洋室 氣分이 잇다. … 書齋를 너무 優待한 點도 잇고 압헤 突出하야 보기가 좀 멋하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四)>, 朝鮮日報 3면, 1929.6.7.

43) 朝鮮式을 改良한 듯 하며 大廳을 中央에 두어 各室을 連結한 … 點이 取할 點이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四)>, 朝鮮日報 3면, 192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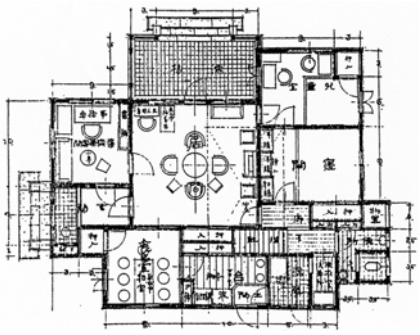
44) 太田博太郎, <住宅近代史-大正から昭和へ-居間中心型住宅樣式の成立と昭和初期の中流住宅(木村德國)>, 雄山閣, 1969, 139쪽

[표 2]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당선안 건축개요

	당선도안	규모	구조	공사비	재료 및 설명
1등		부지 30.8평 건평 14.8평	목조 기와	기초 1,924원 건축비 1,245원 합 2,169원	-실내는 재래조선식을 본위로 다소 개량 -외관은 외국식으로 개량 -각 실은 온돌 -기초콘크리트 -목재는 낙엽송이나 삼나무를 사용 -바깥쪽 양회칠, 내부는 진벽 -지붕처마는 양회칠 기와
2등		부지 32.5평 건평 13.4평	한양 절충 목조	부지 1,813원 (매평 25원) 건축비 1,070원 잡비 1,117원 합 2,000원	-서재는 양풍 -가족실, 하인실은 순조선식 -주방 위에 벽장 -현관·변소타일마감, 주방바닥은 콘크리트 -가족 5인 (부부2인, 소아2인, 하녀1인) -경성시내 전차에서 도보로 약 10분 이내
3등		부지 28.8평 건평 15.8평		부지 1,865원 건축비 1,134원 합 1,999원	-설명 없음
선외가작		부지 33.0평 건평 15.8평	-	-	-외부는 페인트도장 또는 바니시(니스)도장 -외부에 면한 각 출입구는 唐戶*, 각 채광창은 유리창, 실내 각 출입구는 종이 장지문·미닫이문, 나머지는 판자문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마에 양통설치 -응접실 바닥은 판자 위에 리노리움을 깔고 온돌은 기름종이장판, 기타 실은 장판 혹은 콘크리트 -외벽은 철근라스에 바깥면에 시멘트 몰탈마감, 내벽은 회칠을 하고 온돌방은 종이를 바르고, 응접실은 적당한 벽지로 양실의 분위기를 냄
		부지 30.0평 건평 13.6평	목조 기와	부지 1,900원 (매평 30원) 건축비 1,010원 (매평 75원) 잡비 1,190원 합 2,000원	-한 간당 건축단가 100원 -변소·주방개량 -대청과 지하실을 설치하여 주방에서 사용 -주방 중층을 벽장으로 사용 -가족 6~7인 -경성시내 정숙한 곳

* 당호(唐戶) : 문틀에 얇은 널빤지를 끼워 만든 문짝

바로 居室兼食堂으로 연결된다. 居室兼食堂에는 판자 위에 리놀륨을 깐 바닥에 의자식으로 꾸며 西洋室의 분위기를 내고 가족의 단란과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거실에서 다시 복도로 들어서면 內房과 부엌으로 연결되고 나머지 침실은 거실에서 출입한다. 부엌은 개량아궁이와 개수대가 놓여 있고 욕실까지 두어 다른 당선도안보다 부엌의 개량에 많은 신경을 썼다. 욕실은 물을 데워야 하는 설비상 부엌과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부엌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그림 2> 平和記念東京博覽會
(文化村에 출품된 거실중심형 주택44)

金允基는 심사평에서 욕실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문화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45] 즉, 욕실은 위생관념과 결부되어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金允基는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요구되는 소주택으로 거실중심형의 공간구성을 실현하기에는 면적상의 무리가 따른다고 말하였다. 특히, 그는 모든 침실이 거실을 통해서 연결되는 점을 주택 내의 동선 문제상 매우 불편한 결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거실과 침실 사이에 廊下(중복도)를 두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한다.[46] 즉, 소주택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실 배치를 위해 일본식 주택에서와 같이 중복도를 두자는 뜻이다.

선외가작 2안은 전통재래의 공간구성을 따르되, 실의 위치를 변경하여 재래주택을 개량한 안이다. 전통재래의 공간구성과 다른 점은 대청과 越房(건넌방)뒤편으로 內房과 부엌이 겹집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변소가 내실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으로 들어서게 되고 行廊을 제외한 각 실과 부엌, 변소는 모두 대청을 통하여 연결된다.[47] 대문 좌우로 舍廊과 行廊이 위치하고 있는데, 舍廊은 대문을 들어서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고 대청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內房은 주택평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대청 맞은편으로 개구부를 내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변소는 舍廊 뒤편의 복도를 통하여 대청과 연결되고 복도와 대청 사이에 문을 두어 변소의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부엌은 재래부엌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역시 뒷문을 통하여 장독대와 편리하게 연결된다. 부엌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선외가작 2안의 주택평면은 전통적인 대문간의 행랑채와 사랑채가 축소·통합되어 사랑채와 결합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45) 炊事場도 便利하고 浴室까지 두어서 文化生活을 하기에 넉넉하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四)>, 朝鮮日報 3면, 1929.6.7.

46) 적은 面積을 가지고 有限의 經費로 有利하게 좁은 面積을 이용하랴고 만히 애쓴 設計이다. … 그러나 結局 無理한 點이 出來케 되얏다. … 第一缺點이 便利設計이다. 萬一 內房에 大便所까지 가랴면 門을 닐곱箇를 열어야 됩니다. 平面을 보라. 每日 貴차안혀 살수 업다. 應接室과 寢室 사이에 廊下를 좀 내면 살수 잇겟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四)>, 朝鮮日報 3면, 192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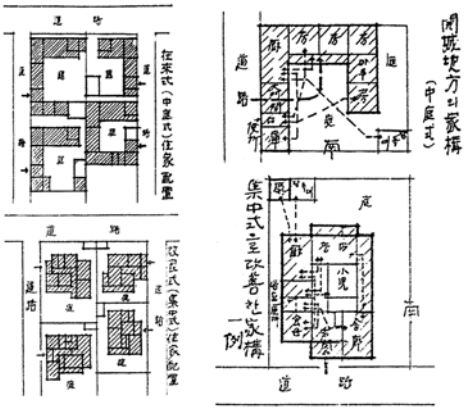
47) 純朝鮮式 特히 京城(中鮮型) 住宅平面을 조금 改良한 點이 特色이다. 大門을 들어가 行廊房, 舍廊이 左右로 있고 二間 大廳을 介하여 內房, 越房이 있다. 內房(二間)을 뒤로 몰고 廚房은 大廳에서 聯結되고 大廳에서 便所를 通한 것도 좋은 生覺했다., 金允基, <住宅設計 考案所感(四)>, 朝鮮日報 3면, 1929.6.7.

4-3. 개량소주택안으로서의 평면특성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당선도안의 주택평면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된 평면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구조와 미관을 갖춘 소주택으로서 재래주택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실 배치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당선도안들은 축소, 변형된 대청이나 복도를 이용하여 실과 실 사이의 공간낭비를 줄이고 통행면적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택 내의 가사동선을 고려하여 부엌을 중심으로 가사작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집약화하고 있다. 1등안과 선외가작 1안은 대청을 없애고 집중식 배치구조로 평면을 계획하고 있으며[48] 나머지 안들은 재래주택의 공간구성을 유지하면서 안방과 부엌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대청과 복도를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동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도시생활이 가능한 개량 소주택으로서 도로와 필지조직에 적합하도록 공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림 3> 朴吉龍의 宅地面積과 건축면적연구 (在來式住宅改良에 對하야)

또한, 실 배치를 개선함과 동시에 부지 내의 空地를 활용하여 채광과 통풍을 해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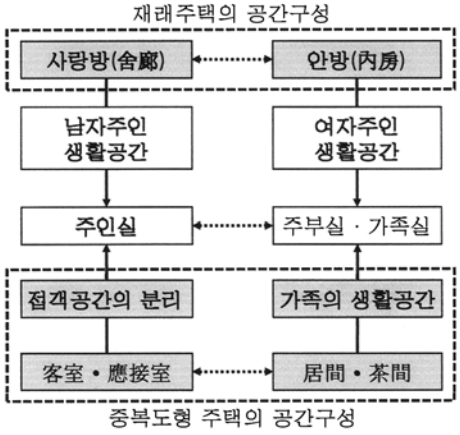
둘째, 소주택의 개량모델로서 전통재래의 생활공간을 집약시키기 위하여 중복도형 주택이 갖는 공간구성 상의 배치특성[49]을 수용하였다. 즉, 중복도형 주택에서 나타나는 접객영

48) 재래주택의 대청은 집안의 佳宴과 祭禮 절차가 간소화 되어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낭비되는 공간적 요소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집중식 평면으로의 개량은 朴吉龍이 <在來式 住宅改良에 對하야>에서 택지면적과 건축면적에 관해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우리의 住宅(京城을 基準으로 함) 所謂 大廳이라는 廣間이 적지 아니한 面積과 밋 工力을 虛費하야 住宅 中央에 空虛한대로 서잇는 까닭에 … 第一은 建築費가 過分을 지당하며 다음은 空虛한 氣分을 取할 必要가 어대 잇겟습니다.', 金允基, <文化生活과 住宅-鎖國時代에 일너진 우리의 住宅制>, 開闢 32호, 56~57쪽, 1923.2.
'집중식의 가구는 실과 실을 통행하는 부분이 옥내 廊下에 있고 통행면적이 최소한도로 축소되었으므로 편리하며 능률적이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주가의 중정식이 가능하나 소규모의 주가는 집중식이 이용효과가 높다. 집중식은 실과 실의 통행을 낭하로 연결하고 공지의 여유가 있음으로 건물의 채광과 통풍이 자유롭고 정원의 효과도 낼 수 있다.', <在來式 住宅改良에 對하야>의 원문내용을 최순애의 연구(1981)에서 재인용

49) 키무라 노리쿠니(木村德國)는 중복도형 주택의 양식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평면형 전체는 동서로 긴 장방형에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그 중심부에서 길이방향으로 약간 북쪽에 중복도가 동서로 관통하고, 한쪽 끝은 불거져 나와 현관이 된다.
② 중복도의 남쪽은 거주부로, 현관홀에 접하여 양풍응접실이 있고, 다음에 연속하여 자시키(座敷), 쓰기노마(次間)형의 和室이 늘어서 있다. 그 남쪽에는 엔가와(縁側)가 뻗어 있어 南庭으로 이어진다.
③ 양풍 응접실은 주인실(서재) 겸용으로 사용된다. 연속된 和室은 많은 경우에 8조(量)·6조(量) 내지 10조(量)·8조(量)이고, 넓은 방에는 도꼬(床)·선반(棚)이 설치된다. 쓰기노마(次間)는 거실(居間)이나 차노마(茶の間)불려 식사실로 사용된다. 이 양자는 후스마로 구분되고 연결되는 동시에, 난간으로도 통해 있다.
④ 중복도형의 북쪽에는 현관홀에 접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 女中室(하녀실), 부엌, 욕실, 內현관 등 여러 부대부분이 북쪽을 면하여 설치되어 있다.
太田博太郎,<住宅近代史-明治時代の都市住宅-中産階級住宅の發生と中廊下形住宅樣式の成立(木村德國)>, 雄山閣, 109~114쪽, 1969

역으로서의 응접실(客室)과 가족생활영역으로서의 거실(居間)·차노마(茶間)의 공간적 분리가 전통재래주택의 性別에 따른 공간분화와 합치되어 '主人室'과 '主婦室'로 대별되는 공간분화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그림4>를 참조)

이러한 공간분화는 전통재래주택에서 나타나는 남자주인의 생활영역이었던 사랑채가 舍廊으로 축소되어 客室이나 서재의 기능을 갖게 되고 여자주인의 생활영역이었던 안채는 內房으로 축소되어 가족실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內房은 재래의 온돌방으로 가족실로 사용하고 부엌은 內房의 난방기능과 함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內房과 항상 연결된다. 그리고 內房과 아동실, 대청이 서로 연결되면서 內房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의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무엇보다 가정생활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주택개량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50]



<그림 4>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당선도안에서 나타난 性別에 따른 공간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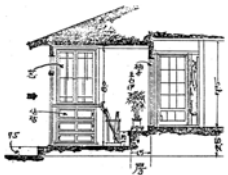
이들 영역은 공간적으로 대청이나 복도로 분리되거나 아동실, 越房이 공간분화의 완충적 공간으로 배치되고 있다. 또한, 복도를 이용하여 각 실의 프라이버시를 높임과 동시에 동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 소주택의 개량모델로서 현관과 하녀실, 욕실 등의 일본식 기거양식과 서구식의 응접실 등 외래의 기거양식을 평면계획적 요소로 수용하고 있다. 하녀실은 현관 옆 또는 부엌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복도를 통해 현관과 부엌으로 연결됨으로써 가족생활에 지장없이 손님을 맞이하거나 가사일을 도울 수 있다.[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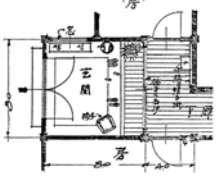
서구식의 客室 혹은 응접실은 남자주인의 생활공간으로서 중복도형 주택과 유사한 절충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등 당선도안에서는 서양식 돌출창을 두어 서재의 분위기를 한껏 연출하였고 선외가작 1안에서도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는 居室兼食堂을 의자식 생활[53]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래의 기거양

50) '男女의 別이라는 것을 尊重히 한 舊時代의 道德이 根本되야 一住宅內에 內室外室을 區別하야 全然히 別世界를 만들어 노음은 現代道德의 그를 許치 아니할뿐 아니라 家庭의 情味를 閑散케 하며 建築基地의 範圍를 넓히하야 事實上으로 經濟問題에도 重大한 關係가 업지 안을 뿐만 아니라 …', 金允基, <文化生活과 住宅-鎖國時代에 일너진 우리의 住宅制>, 開闢 32호, 56~57쪽, 19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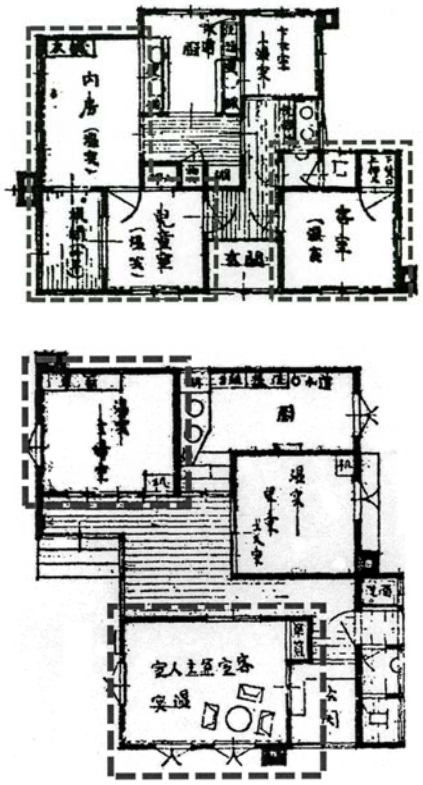
51) 박길룡은 조선 재래식 주택의 외부와의 연락관계가 매우 불편한 단점으로 지적하고 일본식 현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관은 옥내 옥외를 연락하는 관문으로 정문에서 최근거리 되고 정문에서 빨리 認識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正則이고 … 재래의 大門間을 폐지하고 적당한 부분에 현관을 설치하기로 하자. 이 현관의 형식은 대체로 일본식의 현관에서 모방하기를 제의한다. … 그 理由는 신을 현관에서 정리하게 발달되어온 일본식에 현관형식을 배우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관에서 廊下에 오르게 하여 廊下에서 실내 각실로 통하게 한다., <在來式 住宅改良에 對하야>의 원문내용을 최순애의 연구(198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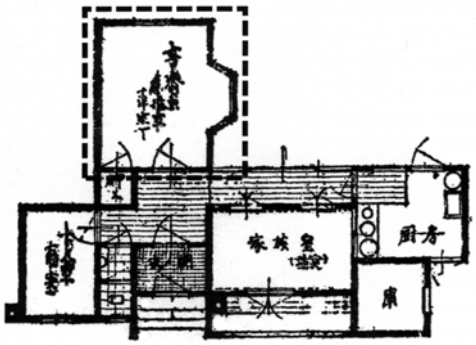
52) <住宅設計圖案當選發表>, 朝鮮日報 3면, 1929.5.30., 1929.5.31.



<그림 5> 접객공간과 가족생활공간의 분화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1등안과 3등안)52)

식들과의 절충을 통하여 '문화생활'로서의 '가족본위'와 '프라이버시' 등 가족생활을 확립하기 위한 생활개선의 이념들을 실현하고자 하였다.54)

넷째, 변소와 욕실이 내실화되고 옷장, 찬장, 곳간 등의 수납공간을 要所에 설치하여



<그림 6> 西洋室로 꾸며진 서재 (응접실)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 2등안)54)

소주택 개량안으로서의 공간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

5. 결론

조선일보사가 주최하였던 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은 일제강점기 생활개선의 여론이 반영된 기획물이었으며 일반대중과 한인건축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에서 한인건축가들은 시대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부합할 수 있는 개량소주택의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당선도안들은 서구식 혹은 일본식의 기거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재래주택의 양식을 지속하면서 외래의 기거양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개선주택으로서의 중복도형 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평면계획적 요소로 채용하여 전통재래주택의 性別에 따른 공간구성을 유지하면서 가족본위의 개선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大門間을 대신하여 재래주택에서는 없었던 현관과 하녀실을 도입하며 욕실을 두고 변소와 함께 설비를 집약화함과 동시에 '문화생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응접실이나 居室兼食堂을

53) 당시 일본의 재래주택 비판이나 주택개량운동의 주장 중에는 의자식의 생활에 관한 주장이 생겨난다. 의자식의 문제는 단지 坐式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의 구조나 프라이버시 그 외 생활사상에까지 연관된 것으로, 가정생활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평면의 형태적인 면에서도, 거실을 중심에 둔 의자식 생활의 중류주택이 나타나게 된다. 거실을 남쪽에 면한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위에 객실(客間)을 겸한 서재 및 현관, 부엌, 식당, 욕실, 변소, 침실을 배치한 것이었다., 平井聖, <日本人のすまい(The Japanese House Then and Now)>, 市ヶ谷出版社, 88~89쪽, 1998

54) <住宅設計圖案當選發表>, 朝鮮日報 3면, 1929.5.31.

부분적으로 의자식 생활을 도입하고 있지만 內房과 기타 침실들은 온돌방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당선도안들은 조선인 생활에 적합한 소주택의 개량모델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생활개선의 이념들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그 중에서도 소주택으로서의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개선이념으로 하여 고안된 주택평면들이었다. '住宅設計 考案所感'에서도 전통재래주택의 공간구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한인건축가들이 대청의 존폐문제나 합리적인 동선공간으로서의 복도 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차후에 朝鮮住宅設計圖案懸賞의 당선도안에서 나타난 평면특성을 비슷한 시기에 한인건축가들이 제안하였던 주택계획안과 비교해 봄으로써 당시 주택개량의 경향을 더욱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최순애, 『朴吉龍의 生涯와 建築에 關한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6.
2. 김란기, 『韓國 近代化過程의 建築制度와 匠人活動에 關한 硏究-改良傳統住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11.
3. 최원우, 『韓國 近代 住居建築의 近代化過程에 나타난 韓人建築家들의 役割과 意義에 關한 硏究』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12.
4. 유재우, 『韓國 都市單獨住宅의 形成過程에 나타난 平面特性-住樣式의 近代化 過程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8.
5. 백선영, 『1930年代 金宗亮의 住居實驗과 H字形 住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2.
6. 이경아, 『일제강점기 문화주택 개념의 수용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8.
7. 太田博太郎, 住宅近代史-大正から昭和へ-居間中心型住宅樣式の成立と昭和初期の中流住宅(木村德國), 雄山閣, 1969
8. 太田博太郎, 新建築學大系(7) - 住居論, 大光書林, 1991
9. 平井聖, 日本人のすまい(The Japanese House Then and Now), 市ヶ谷出版社, 1998
10. 內田青藏·大川三雄·藤谷陽悅, 圖說·近代日本住宅史, 鹿島出版社, 2001
1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編, 연세국학총서36-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도서출판 혜안, 2004
12. 이상록·이유재,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새로운 만남』 도서출판 책과 함께, 2006

A Research on Housing Plan Competitions Promoted by Daily Cho-Sun Company in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Young Bum
(The Dept. of Sustainable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Park, Yong Hwan
(The College of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prizewinning plans of Cho-Sun housing plan competition promoted by Daily Cho-Sun Company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main features of Cho-Sun housing plan competition were that the competition held with an application of popular newspaper readers and a judging committee was composed of only Korean architects, especially Park, Gil-Ryong as the president of the board of examiners.

Cho-Sun housing plan competition put ideological factors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s like advancing to the cultured(modern) life, respecting for family life, respecting for privacy of family members and so on. First of all, the competition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dwelling spaces which focused on making harmonious home life. This study found common characteristics of prizewinning plans of Cho-Sun housing plan competition as the result.

First, Cho-Sun housing plan competition introduced a centralized house plan as a model of the improvement of small-sized houses. Second, architectural orders of western or japanese style mingled with ones of korean traditional style in prizewinning plans as entrance hall, western style reception room(parlour), maid's room, bathroom for example. And a manner of seating using chairs was brought into the style of living which would be assumed in the prizewinning plans. Third, traditional way of composing dwelling spaces was maintained, receiving the characteristics of dwelling spaces of japanese style simultaneously, which central corridor was put at the heart of house for improving arrangement of rooms and flow lines. Fourth, lavatory and bathroom were placed inside of the house.

Key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Daily Cho-Sun, Improvement of Living, Housing Plan Competition, Korean Architects